

전북, 동물헬스케어 산업 전환점 마련

동물헬스케어 허브로… 클러스터·농생명산업지구·규제자유특구 연계,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와 농생명산업지구, 규제자유특구를 하나로 연결하며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북 차세대 동물용의약품 규제자유특구'가 최종 지정·고시됨에 따라 2027년부터 실증사업과 사업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특구 지정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해 온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와 지난해 12월 지정된 익산 동물용의약품 농생명 산업지구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업은 후보물질 발굴부터 효능·안전성 평가, 시제품 생산 임상시험,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전북에서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세계 동물헬스케어 시장은 반려 인구 증가와 축산 첨단화, 바이오·AI 기술 발전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동물용 의약품 시장은 2017년 약 49조 6천억 원에서 2024년 약 70조 6천억 원으로 확대됐고, 국내 시장도 2025년 1조 5162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전북도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동물용 의약품의 미래 농생명 산업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산업의 중심축은 총사업비 1,470억 원 규모의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다. 2023년 효능·안전성 평가센터가 완공됐으며, GMP 수준 시제품 생산시설은 2026년, 반려·특수동물 임상시험센터는 2026~2029년, AI 기반 바이오팩토리는 2027~2030년, 동물 헬스 벤처타운은 2028~2030년 순차적으로 구축된다.

특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임상시험·비밀

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돼 허가에 필요한 공인 시험 역할을 확보했다.

클러스터 조성 이후 산업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제조공장과 기업부설 연구소 등 9개 기업을 유치했고, 시험 평가 40건(36억 원)을 수행했다.

또한 글로벌 동물헬스케어 포럼 개최를 통해 산·학·연·관 협력망을 확대했으며, 현장 실무형 전문 인력 52명을 양성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도·익산시와 함께 '그린바이오 동물헬스케어학부(가칭)' 설치 협약을 체결해 중장기 인재 양성 체계도 마련했다.

익산 농생명 산업지구는 2026~2030년 25.6ha 규모로 조성되며, 기업 집적과 연구개발·사업화 촉진 거점 역할을 맡는다. 올해는 공동 활용 전문 장비 구축과 기업 지원 공간 리모델링, 바이오팩토리 및 벤처타운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도 추진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총사업비 264억 원

을 투입해 2027~2030년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 마련, 자가백신 적용 질병 확대, 독성시험 제출 항목 합리화 등이 핵심 과제다. 이를 통해 첨단 바이오의약품 성분은 6개에서 192개로, 자가백신 적용 질병은 3종에서 8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 기간 중 해외 매출 19억 원, 신규 고용 65명, 사업 종료 후 생산 유발 935억 원과 고용 유발 506명 등의 지역경제 효과도 기대된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클러스터 구축과 농생명산업지구·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연구개발과 산업집적, 규제혁신이 맞물린 성장 기반을 갖췄다"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동물 헬스케어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 우선 배치' 국토부에 건의

9월 정부 로드맵 발표 앞두고… 이원택 지사, 자산운용·금융, 농생명·바이오, 미래첨단산업 3대 전략산업 기관 선정 건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전북에 우선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 전북의 3대 전략산업인 자산운용·금융, 농생명·바이오, 미래첨단산업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핵심 기관을 우선 배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기능 중심의 집적화와 균형성장을 꾀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업 연구기관, 최근 발표된 현대차그룹의 9조원 규모 새 민금 투자 등 산업별 핵심 기반을 이미 확보한 전북이 이러한 정책 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전북에 우선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농생명·바이오 분야에서는 농촌진흥청과 산하 연구기관, 농수산대학교, 농업기술진흥원 등 1차 이전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기존 토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로서의 위상을 굳히기 위해, 관련 산업의 집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대형 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요청했다.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현대차 새 민금 투자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한국전기안전공사·국토정보공사 등 앞서

이전을 마친 기관들을 축으로, 피지컬 AI 산업의 거점화를 이끌 연구 핵심 기관들의 전북 우선 배치를 건의했다.

이들 기관을 받아들이기 여건도 갖춰 나가고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혁신도시 인력의 가용부지를 활용하고, 2030년까지 통근권 내 주택 추가 공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종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초·중·고교 등 정주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전북국제금융센터 조성과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중장기 수용 기반도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도선관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미제출 혐의 회계책임자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운동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B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 겸임) A씨를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한 예비후보자이자 회계책임자로, 법정 기한인 3일(선거일 후 30일)까지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관찰선관위의 지속적인 사전 안내와 제출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는 선거 공정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오픈카지노·마이스 복합단지 유치를”

전북발전연합회, 특별자치도 2기 출범 비전 제시

전북발전연합회(회장 최한양)는 2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앞에서 2기 지도부 출범을 알리는 비전제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한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2기 전북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새만금 오픈카지노와 글로벌 마이스(MICE) 산업 복합단지 유치,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날 기자회견에는 최한양 회장과 이광영 사무총장, 정인 스님 등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전북발전을 위한 공동 실천 의지를 밝혔다.

최 회장은 “6·3 지방선거 이후 전북 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이 어느 때보다 좋은 여건 속에서 일치단결하여 소통을 통해 전북발전과 성장을 함께 이뤄야 할 시기”라며 “새만금 개발과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핵심 지역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와 글로벌 마이스 산업단지를 통한 유치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관광사업이 아니라 국제회의·전

시·관광·비즈니스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사례를 언급하며 “카지노는 복합리조트 성공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철저한 감독과 제도적 장치 아래 운영되는 복합리조트 산업을 통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관광 소비를 창출함으로써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의 전북 이전도 강력히 촉구했다. 최 회장은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과 농생명 기관이 집적된 지역”이라며 “농협중앙회가 이전하면 농생명·금융이 결합된 국가 농생명 클러스터가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을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연합회는 “전북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이끌 강한 추진력과 개혁 의지를 가진 지도부가 필요하다”며 최고위원 후보로 전북 출신 한민수 의원과 이성운 의원에 대한 지지도 함께 밝혔다.

/이만호 기자

최정호 시장, 교통 관문 익산 굳히기 총력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 국가철도망 계획 등 반영 요청

익산역 교통허브·서부내륙고속도로 조기착공 등 피력

민선 9기 익산시가 미래 산업 지도를 바꿀 철도망 확충과 도로 개설, 공공기관 유치 등 대전환 핵심 현안을 국가 계획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관철시키기 위한 전방위 총력전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최정호 시장을 필두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주요 현안들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총력전은 국토교통부 차관 시절의 전문성과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최 시장이 익산의 발전을 이끌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을 주무 부처에 직접 관철시키기 위해 나선 전략적 행보다.

최 시장은 지난 2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전격 면담하고 철도망 확충과 도로 개설, 2차 공공기관 유치 등 3개 분야 5개 핵심 현안 사업의 정부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발품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철도 분야에서 익산이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교차하는 사남부원 철도 교통의 거점이자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교통 중심지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익산역 광역 교통 허브 구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기본구상 용역 추진에 필요한

국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끈질긴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익산전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북권 광역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물류 경쟁력을 도약시킬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사업이 국토부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최종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로 인프라 부문에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동맥인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구간의 내년 조기 착공을 전격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한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국비 반영을 함께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최적지가 익산임을 강조하는 유치 활동도 병행한다.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국가식품클러스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이미 탄탄하게 다져진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점 유치 분야별 공공기관들을 익산으로 나뉘받기 위한 물밑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